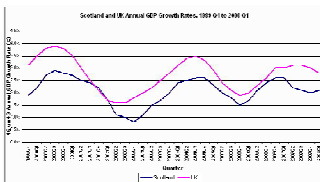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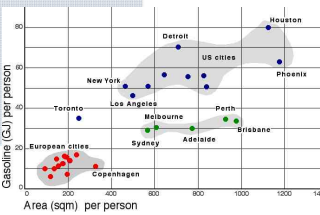


예술을 통한 영국 도시의 재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금호

| 1



1. 들어가며

도시를 표현하는 단어는 많다. 행정, 상업, 공업, 무역, 군사도시 등 도시가 갖는 기존의 중심기능의 용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첨단산업, 생태, 환경, 정보, 유비쿼터스(ubiquitous), 가상(virtual), 건강(Healthy), 살기 좋은(liable) 도시 등 현재의 도시의 기능보다 미래의 목표, 즉 비전을 나타내는 용어가 도시를 표현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 이면에는 도시의 현재에 대한 위기의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수 백 년간을 이어왔던 산업시대에서 탈산업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창조도시(Creative city)도 이런 시대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제시된 하나의 가설이다. 쇠락의 길을 걷는 도시, 재생, 재도약을 시도하는 도시, 새로운 시대환경을 선도하는 도시들을 관찰한 결과 성공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창출의 핵심요건은 '창조성'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창조적 사고를 수렴하고 이를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도시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창조도시의 시민의 활발한 창조활동에 의해 첨단적인 예술과 풍부한 생활문화가 길러지고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하는 창조적인 장소가 풍부한 도시를 말하며, 이러한 도시환경에서는 지역의 여러 문제를 민간이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도시가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

2. 영국 창조도시의 배경

1980년대 유럽사회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유럽 특유의 복지국가 시스템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적 지



원으로부터 독립한 도시들이 어떻게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위기에서 발생하였다. 유럽도시들은 문화예술이 지닌 창의적인 힘을 활용하여 다양성, 포용성, 진정성, 유연성을 지닌 유럽 사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이끌어 내려 하였다. 문화와 예술 활동이 갖는 창의성에 착안하여 자

| 2

유럽고 창의적인 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야 말로 혁신이 요구되는 기술, 지식집약산업을 보유할 수 있다고 창조도시 연구자들은 보았다. 따라서 창조도시가 기존의 문화도시와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창의성을 매개로 한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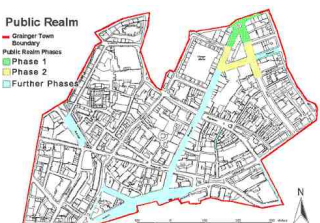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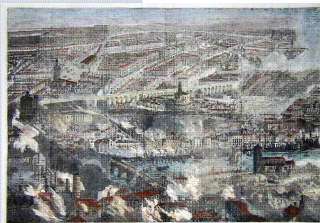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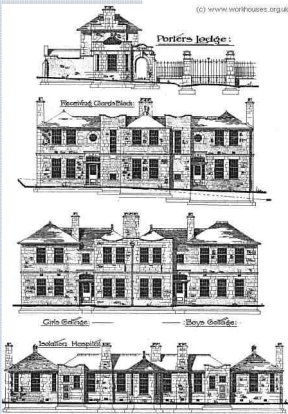
과거 산업의 쇠퇴에 따른 도시의 황폐화를 일찍이 경험한 영국은 도시의 재생, 도시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 왔다. 그 해결책을 문화에서 찾았으며, 혁신과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이 배경을 이룬 네트워크 도시사회 즉 창조적 도시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대거 정부시절인 1980년대부터 있어 왔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하부구조를 조성해야 함이 요구되었다. 쾌적하다거나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보화 사회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문화지향적 도시재생(culture-driven urban renewal)이란 새로운 도시 재생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문화의 생기 넘침, 보행자전용화, 페스티벌, 쇼핑센터, 환락가 등 밤 경제(evening economy)의 재활성화, 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누구든 유인하는 도시매력 정보화, 사람을 유입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문화를 이용 도시 개발·발전을 도모한 영국의 주요 도시를 살펴 앞서 경험한 방법과 효과를 살펴본다.

3. Newcastle upon Tyne-Gateshead

3.1. 개요

뉴카슬은 영국 북동부 해변 타인 앤 웨어(Tyne and Wear) 주 중 타인강(Tyne)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27 만의 작은 도시이다.



뉴카슬이란 지명은 180 년 정복왕 윌리엄(William the Conqueror)의 장자가 세운 노르만 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보다 앞서 로마인 들이 타인강에 다리를 놓고 성채를 쌓았다. 중세 동안 이곳은 성채였으며 스코틀랜드를 공격하기 위한 잉글랜드의 베이스 캠프였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국경 도시로서 광산과 양모 무역(wool trade)의 중심지로 변영했다. 최초 16 세기에 타인강을 따라 만들어진 항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이며 수리센터였다. 19 세기에는 풍부한 석탄자원과 타인강을 낀 잉글랜드 북동부 해안도시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석탄산업, 제철, 조선의 산업기지로 유명해 졌다. 2 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많은 군함들과 런던브리지의 철재다리를 이곳에서 만들었을 정도 철강산업이 발전하였던 곳이다.

20 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뉴카슬 지방의 중공업이 쇠퇴하면서 타인강 주변의 많은 도크, 공장등 많은 산업시설이 방치되게 되었다. 조지아 풍의 그래저타운(Grainger Town)의 재건, 타인강변의 재생작업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추구하였다.

인구 19 만의 게이즈헤드는 일찍이 1980 년대 초부터 환경 예술을 시작하였다. 1986 에 설립된 공공예술프로그램 (Public Art Programme)은 국내 및 국제 인지도 상승시키고 연속적으로 권위 있는 수상을 받고 있다. 현재도 진행중인 프로그램은 엔젤(Angel of The North)에서부터 예술적인 난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80 여개의 작품을 지원해왔다. 게이즈헤드 키스(Gateshead Quays)의 개발과 게이즈헤드 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공공예술이 주변환경과 새로운 건축물에 통합되도록 장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게이즈헤드 키스의 두 주요 문화시설인 현대예술센터 발틱(BALTIC)과 세이지(The Sage Gateshead) 간의 적절한 통합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발에 있어 사회적 공간 (social space)을 강조해 왔다. 공공예술은 게이즈헤드의 재생과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투자를 장려하고, 지역에 대한 강한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만들어 냈다.



3.2. The Grainger Town project

1993 년 뉴카슬시와 영국유산(English Heritage)은 그랜저타운 내의 건축물 개선과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쇠퇴를 막고 혐오스런 건축물로부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얻고 | 4 그랜저타운의 재생전략을 만들기 위해 1996 년 위원회(EDAW)을 만들었다. 재생전략의 목표는 그랜저타운을 도심의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주 유럽의 수도(European regional capital)로써 품격에 맞는 양호한 환경의 그랜저타운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1967 년 4 월에 시작하여 2003 년 3 월까지 거의 6 년 동안 수행되었다. 초기 £74,000,000 을 예산을 잡았으나 최종적으로 £100,000,000 을 초과한 £174,000,000 의 금액이 들었으며, 이중 민간부분은 £146,000,000 가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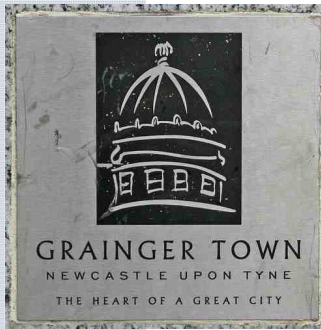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건물(The Union Rooms) - 뉴카슬 중앙역 앞에 위치한 프랑스 르네상스 스타일의 노동조합(복구 당시 영국 퍼브 Pub 체인인 JD Wetherspoons)을 복구하는데 13 개월이 걸렸다. 복원결과 15 피트의 스테인글라스와 거대한 스테인글라스 돔이 설치되고, 펍(Pub)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되었던 형태를 복구하였다.

루가 바(Bar Luga) - 영국은행의 용도도 1835 년 세워진 건물로, 1997 년 CAP 자금의 도움으로 복원되어 현재 일층을 제외한 4 개 층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다.

게이트(The Gate) - 새로운 19,235 m²의 소매점과 레저 콤플렉스로 2002 년에 오픈 하였다. 유리 파사드의 다층 센터로, 12 개 스크린의 영화관, 주점, 피트니스센터, 식당 등이 있다.

프로젝트 수행 후 1506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신용도 증가, 286 개의 새로운 사업 창출, 상업시설 80,900 m²의 환경개선, 위험건물('Buildings at



Risk') 121 개 건물을 사용 가능한 건물로 복원, 얼그레이 티로 유명한 얼그레이 수상 동상(Grey's Monument) 의 수리, 그랜저 거리(Grainger Street)과 클레이튼거리(Clayton Street)에 289 호의 플랫(flats) 및 아파트 건립, 도심 경관에 어울리지 않은 대표적인 11 층의 웨스트게이트 하우스(Westgate House) | 5
오피스 건축물 철거를 등을 있다. 프로젝트 수행 후 현재 영국 내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3.3. Quayside



키사이드(Quayside)는 게이트헤드와 뉴카슬사이의 타인강 독방지역의 지명으로 게이트헤드쪽은 게이트헤드 키스(Gateshead Quays)라 불리운다. 타인강 북쪽 뉴카슬과 남쪽 게이트헤드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리가 많이 있다. 1928 년에 만들어진 타인교(Tyne Bridge)와 1849 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도로 및 철도를 위한 다리인 고도교(High Level Bridge)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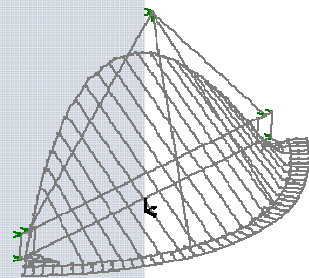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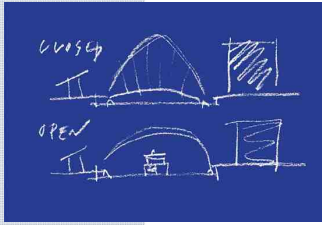


선박에 의한 항만관련 산업을 새로운 오피스 개발로 대체하는 거대한 재생계획인 타인앤웨어(Tyne and Wear) 프로젝트의 결과로 현대예술, 음악 주택, 문화, 바, 나이트 클럽, 카지노 등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야간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천년교(Millennium Bridge), 발틱 현대예술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의 세이지(The Sage Gateshead) 등의 문화적 개발(cultural developments)을 하였다.



키사이드의 주요 경관은 발틱에서 뉴카슬 법원까지의 다리인 밀레니엄브리지이다. 음악 및 회의 센터인 세이지 게이트헤드 또한 독특한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이브리드 전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이용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3.3.1. Gateshead Millennium Bridge

1996 년 게이츠헤드시는 타인강위의 기존 6 개 다리와 조화로운 다리에 대한 현상공모를 내었다. 150 여 참가 팀의 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여 최종안을 선출하였다. 다리 설계의 목표는 다리하부로 배는 지나가게 하고, 기존다리로 이루어진 경관을 깨뜨리지 않으며, 키사이드를 방해하지 않은 구조물을 원하였다. 건축가 윌킨슨 아이레(Wilkinson Eyre)의 설계안이 선정되어다. | 6

전체 길이 126m 폭 8m 의 800 톤의 보행자 및 자전거 혼용 다리로, 타인강을 지나는 선박을 고려한 세계최초이자 유일의 틸트교(Tilt bridge)로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2 세가 2002 년 5 월 7 일 직접 방문하여 개통을 축하하였다. 총비용 £22,000,000 가 들었으며 부분적으로 새천위원회(Millennium Commission) 와 유럽지역개발자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등의 지원을 받았다.

개통 전부터 전세계로부터 구조적 · 미적 아름다움으로 환송을 받았으며, 이 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세계적인 미국 누드 작가인 스펜서 튜닉(Spencer Tunick)의 2005 년 7 월 17 일 사진 촬영으로도 유명하다.

다리가 올라지면 25m 높이의 배가 다리 아래로 지나갈수 있고, 다리의 각도가 40°도 최대 움직임에 필요한 시간은 4.5 분이 소요된다. Northumbrian Water University Boat Race 와 the Cutty Sark Tall Ships' Race 와 같은 보트 경주의 주요 이벤트 장소로 이용된다.

이 다를 통해 건축가 윌킨슨은 2002 년 영국 건축가 협회 스티어링 상(RIBA Stirling Prize), 2003 년에 최고 구조물상(Structural Supreme Award)을 받게 된다. 2005 년에는 세계 다리 및 구조물 기술자 협회(IABSE)가 이 다리에게 최고 구조물 상을 수여하였다.

3.3.2.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발틱(BALTIC)은 타인강의 밀레니엄브리지 주변에 위치한 현대예술을 위한 국제 센터이다. 세계 각지의 현대시각예술의 커뮤니케이션, 표현의 선구자들이 전시 및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 7



타인강 주변의 최후의 산업 벽돌건물이었던 곡물창고를 1940년대 게이즈헤드시에서 국제 미술 전시회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에서 출발하였다. 1994년 왕립영국건축가협회(RIBA)가 주최한 국제현상공모에서 엘리스 윌리엄스 건축사무소(Ellis Williams Architects)의 젊은 건축가 도미니크 윌리엄스(Dominic Williams)의 설계안이 선정되었다. 1997년 예술위원회의복권자금(Arts Council Lottery Fund)로부터 발틱 건립을 위해 10년 동안 £33,400,00을 받고, 건립 후 5년 동안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500,00을 받게 되었다.



발틱의 주요한 역할은 현대 시각예술분야의 생산활동 독려 및 지원, 작가의 독려와 시각예술의 이해를 위해 작품전시, 새로운 청중을 창출하고, 새로운 신인 작가의 창의력 독려의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네 모서리의 벽돌을 제외하고 재개발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서점, 카페, 정보센터, 리셉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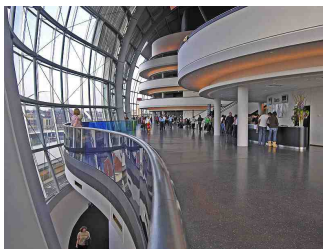
2002년 7월 13일 토요일 밤 대중에게 공개된 후, 최초 전시회 첫 주에만 35,000명의 방문자가 다녀갔다. 그 후 발틱은 불과 5년 동안 2,500,000명이 방문하였으며, 1년 동안 웹사이트, 도서관, 문서 등으로 통한 1,000,000명의 가상 방문자가 있었다. 24개의 나라 200여명의 예술가들이 발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매년 발틱은 예술클럽의 400세션, 사진과정, 예술가와 대화, 예술과 주체 토론회를 통해 만여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시킨다.



3.3.3. The Sage Gateshead

1996년 게이즈헤드시는 버려진 공업용지였던 대지가 비전 있는 장소로 변모하길 원하였다. 그 비전은 음악을 연주하고, 듣고 배우는 장소를 만들





고자 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지역 영국의 북동부에서 최상급의 음악을 접하려면 6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음악 연주회당이 없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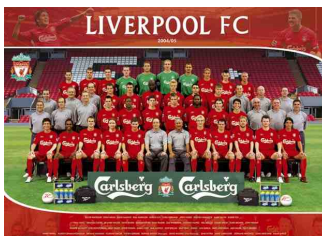
1997 년 현상공모에서 노만 포스터의 설계안이 선택되었다. 곡면유리와 스테인레스 스틸로 덮힌 건물은 노만 포스터 디자인, 부로 합폴드(Buro | 8 Happold) 구조설계, 몰 맥도날드(Mott MacDonald)설비 설계와 아랍(Arup)의 음향설계로 2004 년 12 월 개관 하였다. 국립복권자금(National Lottery grants)을 포함하여 총 £70,000,000 의 비용이 들었다.

주요 내부 공간은 3 개의 공연공간, 음악교육센터, 카페(The Sir Michael Straker Café), 4 개의 바와 한 개의 식당(brasserie)과 공공 홀(public concourse)로 이루어져 있다. 파노라마적인 경관을 가진 중앙 홀은 도시 거실(urban living room)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건축물 전체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지역의 국지풍과 자연 환기를 고려한 공기 역학 구조의 터널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구조체의 벽돌과 콘크리트는 열 저장소 역할을 하여 중앙공간의 방사열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1,700 석 규모의 첫 번째 홀은 비엔나의 유명한 뮤직페어라인(Musikverein)을 모델로 하여 음향적으로 완벽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천장의 곡면과 목재 벽은 여러 음악장르에도 적당한 음향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400 석 규모의 두 번째 홀의 음향적으로 매우 뛰어나 세계적으로 10 위 안에 드는 공간이다.

200-3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평한 바닥을 가진 사각형의 노던락 기금 홀(The Northern Rock Foundation Hall)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중앙홀 아래는 음악교육센터로 여기서 토론회, 시민 음악 수업, 악기 수업 등이 이루어 진다. 건물은 연주회가 없는 동안은 일반에게 공개 되어 방문자는 리허설, 토론회 과정을 볼 수 있다. 2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5 개의 바와 공공도서관이 함께 있는 다용도 문화복합시설이다.



세이지는 800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매년 600,000 명의 사람이 건물을 이용한다. 주요 상으로 2005 년 British Construction Industry Awards 과 RIBA Award for Inclusive Design 등을 받았다.

3.3.4. The Angel of North

1998 년 영국 런던 에딘버러 간 고속도로 A1 에서 바라볼수 있는 Team Valley 위의 엔젤(The Angel of North)은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타인교처럼 지역의 유명한 아이콘이 되었다. 매일 90,000 명의 고속도로 운전자가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은 과거 게이즈헤드 광산 역사의 장소로 석탄광산의 갱도입구 목욕탕이었던 곳을 1990 년대 초 녹화되었던 곳이다.

공공예술프로그램(Public Art Programme)의 하나로 시작된 엔젤 작품은 1994 년 1 월 국제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안토니 고클리(Antony Gormley)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후 1996 년 총 £ 800,000 기금을 모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4. Liverpool

4.1. 개요

리버풀은 인구 45 만이 거주하는 영국 북서잉글랜드의 해변도시이다. 인구가 불과 1 천명에 불과하던 도시가 17-18 세기 카리브해의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한때 노예무역 전체의 4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최초 부두(Dock)는 1715 년에 개설되었으며 점차 머시(Mersey)강을 따라 11km 길이로 확장 되었다. 1840 년 리버풀 최초의 증기선의 출발을 기점으로 감자농사 기근으로 아일랜드를 탈출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신세계 북미로 떠나려는 유럽 이민자들이 이곳으로 밀려와 대부분이 이곳에 정주하였다. 한때 시 인구가 100 만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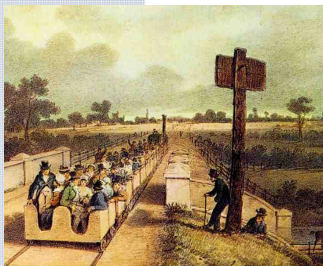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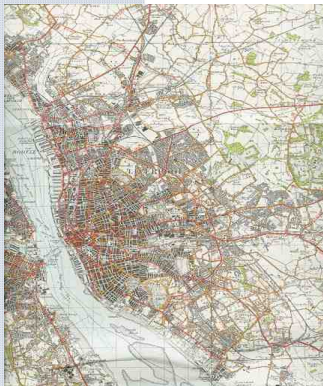
1960-70년대 들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폐허의 도시로 변했다. 공장과 창고가 비어가고 빈집이 늘어났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리버풀은 커다란 변화를 원하였고, 비틀즈(The Beatles)의 상품화와 유럽문화수도를 이용하여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4.2. 2008 유럽 문화 수도

1985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1999년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이름이 바뀌었다. 유럽 문화수도는 유럽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하고 다른 도시들이 우수한 문화를 개발해 나가도록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며, 문화가 도시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이 되어 왔다. 단순히 어느 도시의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발전과 혁신을 격려, 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문화가 도시의 삶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 통합, 교육, 비즈니스 영역에 공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더해갔으며,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얻은 도시에 관광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었다.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자 2005년부터는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이 돌아가며 유럽 문화수도를 지정하고, 매년 2개 도시가 유럽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을 갖기로 하였다. 영국 차례가 돌아온 2008년은 리버풀이 노르웨이의 스타방에르(Stavanger)와 함께 유럽 문화수도가 되었다. 리버풀은 2008년 유럽 문화수도가 되기 위해 버밍엄(Birmingham), 브리스톨(Bristol), 카디프(Cardiff), 뉴카슬(Newcastle)-게이츠헤드(Gateshead), 옥스포드(Oxford)와 같은 영국 내 유명한 도시들과의 경쟁을 치렀다.





리버풀은 ‘한 도시 속의 세계(The World in One City)’라는 슬로건으로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다. 리버풀은 뛰어난 공공 건축물, 풍요로운 예술사와 문화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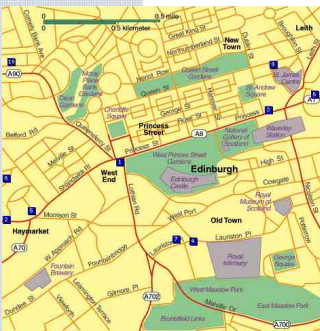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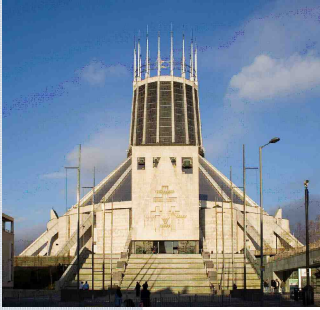
리버풀은 런던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도시들 중 가장 많은 수의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을 가지고 있고, 비틀즈의 탄생지로서 전세계에 알려져 있다. 비틀즈의 여러 노래에 영감을 주기도 한 리버풀 곳곳에는 비틀즈와 관련된 장소, 그들에게 헌정된 장소가 많다. 2004 년 풍부한 문화사, 상업 항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 받아 리버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지(UNESCO World Heritage Site)로 선정되었다.

리버풀의 보석 같은 문화,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의 신고전주의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인트 조지 홀(St Georges Hall), 로열 리버 빌딩(Royal Liver Building), 영국 최초의 마천루인 로열 리버 빌딩(Royal Liver Building), 유럽 최대의 영국 국교회 대성당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딕 아치가 있는 리버풀 대성당(Liverpool Cathedral) 등이 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대성당(Metropolitan Cathedral of Christ the King) 을 비롯하여 몇몇의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현대 건축물이 있으며,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중국식 아치도 있다.

4.3.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유럽 문화수도의 역할에 충력을 다하기 위한 리버풀 문화 회사가 리버풀시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도시의 여러 단체들과 창조 산업들, 아티스트들과 학교와 사업체들과 함께 리버풀에 더 많은 직업기회와 더 확고한 경제기반을 가진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2008 년 유럽문화수도 타이틀이 확정된 리버풀은 2003 년 이후로 장기적인 도시 문화 계획을 세워, 매 해마다 다른 테마로 그만의 독특한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계획(2004 년 Faith in One City / 2005 년 Sea Liverpool / 2006 년 Liverpool Performs / 2007 년 리버풀 800



년 / 2008 년 유럽 문화 도시의 해 / 2009 년 환경의 해 / 2010 년 혁신의 해)
은 2008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후 2 년까지 이어지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08 대사', '08 Welcome', '08 Businessconnect', '엽서 보내기', '08 뉴스레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5. Edinburgh

5.1. 개요

사화산인 아서스시트(Arther's Seat)와 북동쪽으로는 칼톤힐(Calton hill)이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하며, 중세와 조지아 시대의 구역으로 나뉘는 에딘버
러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 중의 하나로 꼽힌다.

에딘버러(Edinburgh)는 스코틀랜드지방의 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스코
틀랜드 왕국의 수도이다. 많은 역사적 건축물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도시로 '근대의 아테네' 라고 불린다.

에딘버러(Edinburgh)라는 지명은 원래 옛날 노섬브리아(Northumbria)의
왕이었던 에드윈(Edwin)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에드윈의 성읍(Edwin +
Burgh)이라는 뜻에서 에딘버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5.2. 축제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 년에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된
에딘버러 국제축제(The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부터 에딘버러 축제
의 역사는 시작한다. 개최 초기부터 음악, 연극, 그리고 무용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 주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행사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에딘버러에서는 국제축제를 기점으로 많은 수의 축제가 만들어 졌다. 그 중 프린지축제(Edinburgh Festival Fringe), 군악대축제(Edinburgh Military Tattoo), 책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 영화축제, 재즈블루스축제와 신년맞이 축제(Edinburgh's Hogmanay), 과학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어린이축제 등이 주요 행사이다.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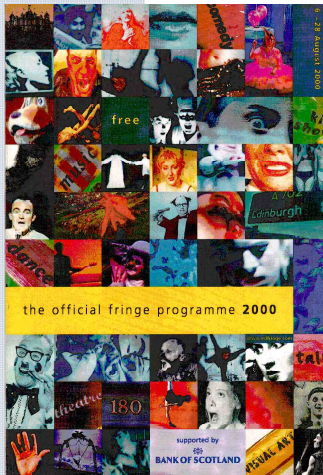
5.2.1. Edinburgh Festival Fringe

1947 년에 8 개 극단이 예술과 문화를 통한 전후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변두리의 작은 극장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공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현재는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등 공연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유명한 축제로 자리잡았다. 프린지축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예술축제(the largest arts festival on the planet)’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2003 년도의 제 57 회 프린지축제에는 세계 668 개 공연단의 1 만 2 천 940 명의 출연자가 200 여 곳의 장소에서 총 2 만 1 천 594 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유료 관람객 수만 118 만 4 천 명에 달하였다.

프린지축제의 특징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축제참가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수준 높은 예술작품만을 공연하는 에딘버러 국제축제와 크게 다른 점이다. 난타(cooking)도 1999 년도 프린지축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후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되었다.

5.2.2. Edinburgh Military Tattoo

1950 년 에딘버러 국제축제 때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참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군악대축제는 에딘버러 시내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은 에딘버러 성에서 펼쳐진다. 아름다운 에딘버러 성의 조명을 배경으로 독특한 엔터테인먼트가 벌어진다. 잉글랜드 버킹검 궁의 근위병 교대식과는 사뭇 다르게 야간에 이루어지며 다분히 놀이동산의 퍼레이드와 같은 관광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 에딘버러 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절묘한 빛의 연출



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색색으로 에딘버러 성벽에 조명을 비추고, 성채에
 햇불을 밝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낡고 오래된 에딘버러 성채는 군
 악대축제가 열리는 밤이면 아름답고 환상적인 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에딘
 버러 군악대축제의 정식명칭은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 (Edinburgh | 14
 Military Tattoo)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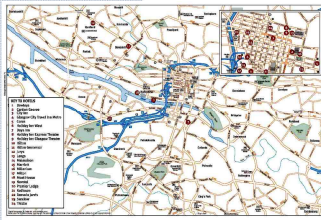
5.2.3. 경제 효과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시에서는 일년 내내 많은 축제와 이벤트가
 벌어진다. 인구 45 만 명에 불과한 이 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축제는 연
 간 12,000,000 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축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125,000,000 에 달한다. 축제를 창안한 사람들은 축제가 유럽과 영국, 그리
 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문화적 생활을 활기 넘치고 풍요롭게 할 것이며,
 인류의 정신을 꽃피울 토대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또한 만약 축제가
 예술적인 꿈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곧 에딘버러와 스코틀랜드의 주요한 새
 로운 관광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꿈과 비전은 오
 늘날 현실로 나타났다. 에딘버러의 축제들은 현재 에딘버러와 스코틀랜드
 지역의 경제적 수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 에딘버러에서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7 조 원(1 억 2 천
 500 만 파운드)에 이르며, 약 4 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6. Glasgow

6.1. 개요

늘 푸른 땅이란 뜻의 글래스고는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문화 중심도시로서 역사적인 많은
 갤러리와 박물관이 있다. 글래스고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도시였으나 1960
 년대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이 하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글래스



고시는 제조업 분야에서 벗어나 후기 산업사회에 맞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 문화와 예술을 도시 재건 프로그램과 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6.2. 문화도시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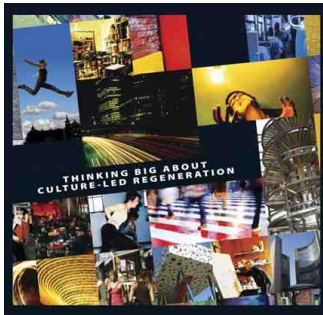
인구 62 만 명의 글래스고는 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문화 중심 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갤러리와 스튜디오, 시립 콘서트 홀, 새로운 실험 극장을 갖춘 문화거리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대형 문화 예술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였다. 지역개발 위원회 및 페스티벌 조직을 설립하고 글래스고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또한 1988 년부터는 가든 페스티벌(Glasgow Garden Festival)을 시작, 관광객들의 글래스고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또한 글래스고 지역 위원회 페스티벌 분과가 유럽 문화 도시 선정에 관련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예술가를 지원하고 폭넓은 문화 프로그램을 조직한 덕에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하여 관광객 수가 50% 증가하였다.

1990 년 문화도시(city of Culture)지정 이후 도심을 집중적으로 개발 마케팅 도구로서 추진하고 도시를 문화적으로 변모, 각종 축제와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글래스고 중심 산업을 문화·예술 산업으로 전환하고, 문화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서비스 업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이는 문화정책을 통해 민주적 개발과 자치를 경험하는 등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부단히 이어온 결과이며, 또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공조가 이루어낸 성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시의 상징물이 될 만한 대형 박물관 건립으로 다른 문화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주었으며, 박물관 주변에 대형 호텔, 컨벤션 센터,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등 주변 지역을 문화 벨트화하여 도심 미관 제고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7. 나오며

이상 영국의 4 개 도시에서 수행된 재생방법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6

	문화자원	방법	비고
Newcastle-Gateshead	문화적 배경 취약	강변개발/공공미술지원정책/구도심재생	새로운 유형의 문화창조
Liverpool	풍부한 문화자원	비틀즈 / 문화수도 / 시민참여	
Edinburgh	문화적 배경 비교적 취약	축제	무형적인 문화
Glasgow	풍부한 문화자원	문화중심거리/가든축제 / 문화도시	도심 중심적 접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도시들은 문화를 이용한 도시재생을 추구하면서도 각기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